

DMZ 문화재 보호 무방비 상태

휴전선 부근 군사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이다. 민통선을 비롯한 군사보호지역내 문화유적이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도굴꾼에 의해 훼손 사정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

정이다. 임진강변 모부대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 마애사면석불은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뒤늦게 도지정(유형문화재 156호)을 받았지만, 마멸이 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보호각 설치

등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사보호구역은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민통선 이남으로 구분돼 있다. 비무장지대에는 단 한 건의 지정문화재도 없다. 주위가 온통 지뢰밭이라 조사나 그에 따른 문화재보호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비된 외관과 달리 옥개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땅위에 내버려져 있는 부도

일손을 돕는 척하다가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조선시대의 석불상으로 추정되는 운장리 석불상은 무성한 풀밭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민통선 이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군부대나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사전조사없이 군부대 임의대로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천 심원사지는 부대 안에 있어 조사가 발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부도군(경기도유형문화재 138호)만이 군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절터의 돌출대와 외벽 등은 아무렇게나 널려있다. 인제군의 경우 최근 환경영향평가 없이 군사종합훈련장이 만들어져 부근의 탐 3기가 그대로 땅 속에 묻혀 버렸다. 강원도청이 이를 문화재자료 118호로 일괄 지정해 이

전해야만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통일을 대비,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의 파괴방지를 위해 91년부터 휴전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조사,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 조사는 현재 연천·파주·철원·화천·양구 등 5개군을 마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 김성배씨는 "우선 민통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10개시군의 지표조사를 통해 중요한 문화유적은 국가나 시도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뒤늦게나마 휴전선 부근 문화유적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윤기석 기자

경기국보전 금은입사공예전 민속자료전

박물관특별전 '불거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국·도립박물관들이 잇따라 특별전을 마련, 관람객들을 시원한 전시실로 이끌고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경기국보전', 국립중앙박물관의 '금·은입사공예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의 '예용해선생 기증민속자료전' 등 세 곳의 전시회가 그것.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1일부터 8월3일까지 특별전시회 '경기국보·포용과 슬기의 자취'를 열어 국보 186호인 양명출토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한 국보7점, 보물23점, 도유형문화재5건 등 총 1백15점을 선보이고 있다. 또 전시기간 중 2차례에 걸쳐 학술강연회도 열린다. 27일에는 '경기도의 불교문화'(홍윤식 동국대교수) '분원과 조선포교'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가, 7월11일에는 '경교명승첩과 경제'(최한수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멋'(정경자 서울대교수)이 발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새 박물관으로 이사후 처음으로 특별전시회 '금·은입사공예특별전'을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현존 최고(最古) 향완인 표총사 은입사향완(국보 75호)을 비롯 청동은입사표류수금문장병(국보92호) 등 우리나라 금은공예의 백미로 꼽히는 금·은입사공예품 1백30여 점이 소개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조유진)은 25일부터 7월28일까지 '예용해선생 기증민속자료전'을 마련하고 있다. 언론인으로 민속학자로 평생을 전통문화의 수집과 보존에 힘쓴 예용해선생은 지난 94·95년 총 2백90점의 민속공예품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중 조상의 체취와 생활의 멋이 배어 있는 60여점이 전시되며, 곱돌·대리석·화강암 등 다양한 석재품들이 소개돼 그 재질과 쓰임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장리석불상등 훼손방지 도굴실태 파악 불가능 원형보존대책 세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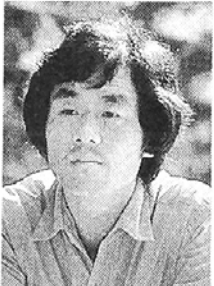
민통선지역내에 있는 고려시대 묘는 봉분은 물론 석실안이 동계로 도굴당한 채 파헤쳐져 있다. 많은 부장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 50년간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방치돼 도굴된 문화재 실태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다. 파주군청의 전상호씨는 "휴전선 이남의 군사보호구역은 정부도 민간인도 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각지대라 도굴꾼들이 농병기때

철원군 운장리 석불상.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우거진 수풀속에 방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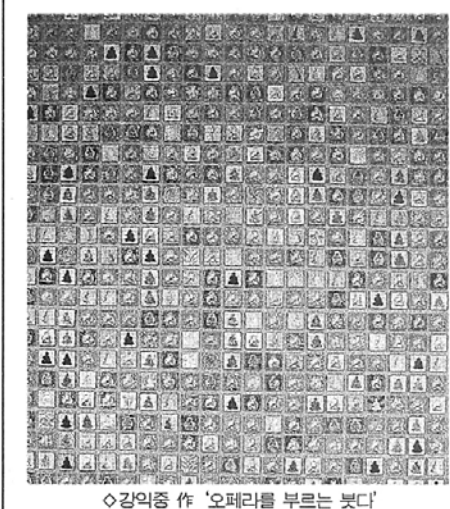
한승원 자전소설 '해산가는 길'

"존재의 참의미찾는 여행"

"길을 생각할 때마다 석가모니를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길에서 태어나 맨발로 열사의 광 인도를 걸어서 전도생활을 하셨으며 결국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가 갔던 그 길이 곧 내가 가고 있는 운명의 길이요, 누구나 걸고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연꽃바다> 등의 작가 한승원씨(59)가 최근 <해산가는 길>(문학동네)을 펴냈다. 아들인 한승림씨가 작품 발문을 써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 <해산가는 길>은 한씨의 자전소설로 작가의 유년기와 소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의 호이기도 한 해산(海山)은 바다속에 있는 높이 1천미터 이상 되는 큰 산이라는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한씨는 자신의 소설이 "비가 시적이며 근원적인 존재와 가시적인 존재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의미와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주제"이라며 "어떤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느냐는 것은 1차적인 의미달달일뿐이고, 자신의 진실하고 참담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2차적이



며 본질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작가의 고향인 전남 장흥의 시골 마을로 가는 도정을 떠올리면서 시작해 주인공이 35km정도 되는 길을 따라 쌀집을 짊어진 채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끝난다. 한씨는 소설의 대미를 이렇듯 쓴 것에 대해 "이 길은 셋 길이 아닌 물어가며 우회하는 낯선 길로 내 운명과 동일시되는 상징"이라며 "몇 년 후 이렇게 될 회갑때 청년기의 방황·절망·열정을 담은 2부를 내고 싶어 만든 연결고리지만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되게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



강익중씨 '오페라를 부르는 붓다'

"3인치 회화 모여 포용의 세계"

강익중씨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산타 부처' '쇼코렛을 먹는 붓다' '영어를 배우는 붓다' 등 동양정신을 대표하는 붓다시리즈로 유명한 강익중씨(37)가 제4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백남준(93년 황금사자상), 전수현(95년 특별상)씨에 이어 한국미술가들이 3회 연속 수상했다. 15일 개막한 세계최고 권위의 미술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강씨는 사방 3인치의 '오페라를 부르는 붓다' '비빔밥 만들기' '한자를 배우자' 등 1만3천여개로 이루어진 목각부조 설치미술을 출품, '오페라를 부르는 붓다'는 동양정신을 대표하는 부처가 서구문화의 핵심적인 오페라를 배우는 작업을 상징화했다. 강익중씨는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헝크 아론은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하는 자신을 관조한다고 했다. 나도 미술을 한다기보다 미술을 하고 있는 자신을 관조하며 삶의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익중씨를 졸업하고 지난 84년 뉴욕에 건너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수학한 강익중씨는 가로x세로 3인치(7.5cm)의 작은 캔버스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을 새긴 3인치회화를 즐겨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한다. 작은 공간에 주변의 작은 일이나



도선사 경내에 세워진 설산스님 시비. 워져 13일 제막식을 가졌다. 참배객들에게 불법을 시어로 접하게 하는 이 시비는 주지

목각 부조 만3천여개로 만든 4가지 형태 설치미술 출품

스처가는 풍경, 일상생활의 관찰이나 기억, 염원 따위를 파편적인 이미지나 휘갈친 낙서 또는 경구로 새겼다. 이 작은 그림들이 수백 수천개의 형태로 또 다른 전체를 창조하며 우리 전래의 문화적 포용성 융통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거침없이 표현해 주 목적을 끝냈다. 강익중씨의 작품 8천여점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미술관인 LA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에 한국작가로는 첫 별도 전시실에 소장될 만큼 백남준이후 국제미술계에서 주목 받는 한국 작가이다. <속>

팔만대장경 변상도 전시

해인사는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인사 구광루에서 팔만대장경 변상도 전시회를 갖는다. 경전의 주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려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화엄변상도 등 변상도 30여점과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해인사의 변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사진, 해인사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풍광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0599)31-1023

문화 소식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무용필름 페스티벌과 7월 8~9일 다니케이 극장에서 열리는 제3회 아시아 현대무용제에서 갖는 이번 공연에는 선무 '바라밀다 II - 1997'이 선보인다. 보시 지계 인옥 정진 선정 지혜 등 총 6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물놀이패 한울림이 출연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도선사 설산스님 시비 제막

"...연(緣)은 무상이요 정(情)은 환발인대 산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하오..." 도선사 경내에 이같은 내용의 시비가 세

동광스님이 1천원 기도 성취 회향을 기념해 세운 것. 시는 설산(정토사 주지)스님의 '산거(山居)'

故 임군홍씨 미발표작품전
갤러리 도음(대표 신동은)이 마련하는 특별기획전 임군홍(1912~1979) 미발표작품전이 25일부터 7월 8일까지 관훈동 갤러리 도음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임군홍씨는 6·25때 남북되어 북에서 활동하다 1979년 타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군홍의 '보살상' '불상' '골목인상' '소녀' 등 6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02)739-1406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문의에 대한 답을 위해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니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기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祈 禱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발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영명도 불자들도 기도를 통하여 / IV. 욕망을 구한 일타르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특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르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의 율화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에념(無礙)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김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능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법포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성출판**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